

‘탄소중립 적극 주도’ 최정우 회장, 세계 철강산업 이끈다

(포스코)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선임
내년 10월부터 신입 부회장 역할

포스코, 철강산업 발전기여 인정
‘제12회 스틸리 어워드’서 2관왕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선임됐다.

포스코는 지난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철강협회 회원사 연례회의에서 최정우 회장이 회장단에 선임됐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총 3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첫 해 부회장 직을 1년간 맡은 이후 다음 1년 동안 회장 직을 수행하며, 마지막 3년 차에는 다시 1년간 부회장 직을 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오는 2022년 10월 세계철강협회 총회 개최 시까지 1년

간 신입 부회장 역할을 맡게 되며, 이후 1년 간은 회장으로서 전 세계 철강업계를 이끌게 된다. 최 회장은 회장단 취임 1년 차에 인도 JSW의 사잔 진달 회장과 중국 하북강철집단의 CEO인 우용 부회장과 호흡을 맞춘다.

최 회장은 지난 6일 철강업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논의하는 하이스(HyIS) 포럼을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세계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적극적

으로 주도해왔고, 세계철강협회 내 중요 태스크포스인 철강 메가트렌드 전문가 그룹 위원장과 강건재 수요 증진 협의체 위원장을 맡는 등 협회 내에서 꾸준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을 높게 평가받아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이날 연례회의에서 함께 발표된 제12회 스틸리 어워드에서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2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스틸리 어워드는 2010년부터 매년 세계철강협회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철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철강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기술혁신 ▲지속가능성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교육과 훈련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가 기술혁신 및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총 6차례

에 걸쳐 수상했다. 올해는 총 5개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라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한 기가스틸 롤스래핑 신성형 공법 세계 최초 개발 및 국내외 협업을 통한 양산화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가스틸은 인장강도 1GPa 이상의 초고강도 경량강판으로 1㎡면적당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나다. 동급의 타 소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라 ‘꿈의 자동차용 강판’이라고 불린다.

포스코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 차체 경량화 요구 등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7년부터 약 5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해 광양제철소 부지내 기가급 강재 제조설비를 신·증설해왔다. 지난달엔 기가스틸 10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올해 3월 포항에 개관한 Park1538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연계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철의 심미성과 미래 기술력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담아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Park1538은 포스코가 포항 분사 인근에 홍보관과 역사박물관, 명예의 전당, 수변 공원을 테마공원 형태로 조성한 복합문화 공간이다.

한편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1년 연속 1위 선정, 2018년 및 2020년 S&P Global Platts 선정 최우수철강사상 수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철강사로 인정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성전자, ‘C랩’ 하반기 우수과제 5개 선정

C랩 스피노프 론칭 데이 진행
코로나 진단키트 등 창업 지원

삼성전자가 또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에 배출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13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C랩 인사이트 하반기 우수과제 5개를 선정하고 ‘C랩 스피노프 론칭 데이’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윤호 사장과 승현준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까지 모여 창업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C랩 인사이트는 창의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 및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2년 12월 처음 도입해 399개 과제에 1395명 임직원이 참여했다. 2015년 이후에는 임직원 199명이 57개 스타트업을 설립했고, 올해만도 지난 5월 4개에 이어 하반기에 5개를 추가해 총 9개를 만들게 됐다.

지난 6년간 300억원을 투자해 창업한 스타트업 57개는 47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에도 기여하고 있다. 후속 투자 유치 금액도 1000억원을 넘어

고, 기업 가치도 5200억원을 돌파했다. 생존율은 3년차 98%, 5년차 65%로 국내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한다. CES에서 14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도 높였다.

삼성전자는 2018년 8월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통해 5년간 C랩을 통해 사내과제 200개, 외부 스타트업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내부과제 156개와 외부 스타트업 202개가 지원을 받았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최윤호 사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데 큰 박수를 보낸다”며, “C랩을 발판으로 미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 스타트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랩 인사이트 과제는 1년간 현업에서 벗어나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비, 과제 운영 자율권 등을 제공받게 된다. 사내에서 사업으로 활용되면 과격적인 센터비를 주고, 외부 사업성이 있는 과제에는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힘을 보탠다.

분사한 스타트업은 초기 사업자금을 투자 형태로 지원받으며, 판로 개척과 해외 시장 진출 관련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뿐 아니라 창업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보인 희망시 5년내 재입사 기회도 부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 5개는 지난 1년간 아이디어 구체화와 시제품 제작 과정을 거쳐 스피노프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3개월간 법무와 세무, 투자 등 창업 실무 교육과 법인 설립 준비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후 본격 독립하게 된다.

▲ 이미지 인식 기술 기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판독 솔루션 ‘디아비전(DiaVision)’ ▲ 가시광 통신 기술을 활용한 무인 매장 혁신 솔루션 ‘치즈에이드(Cheeseaid)’ 등이 새로 창업하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이라는 CSR 비전으로 청소년 교육 중심 다양한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용기자 juk@



패션 모델들이 현대자동차와 분더샵, 레클레어가 협업해 선보인 업사이클링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車 폐기물이 의상으로 재탄생 현대차, 업사이클링 제품 공개

리스타일 2021 프로젝트 실시
친환경 자원 선순환 기업 도약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폐기물을 재활용한 패션 제품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의 신선한 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공감하는 글로벌 패션 편집샵 ‘분더샵’ 및 ‘레클레어’와 함께 ‘리스타일 2021’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자동차 소재를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14일 공개했다. 이는 글로벌 패션 편집샵 분더샵·레클레어와 함께 진행한 ‘리스타일 2021’ 프로젝트로 자동차와 패션의 이색 협업을 통해 친환경 업사이클링 트렌드를 알리기 위

해 기획됐다.

현대차는 2019년 미국 친환경 패션 브랜드 ‘제로+마리아 코르네호’와 함께 폐가죽시트를 업사이클링한 의상을 뉴욕에서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알리기에리’ ‘이엘비 데님’ 등 6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 자동차 폐기물을 활용한 주얼리와 조끼 등을 선보였다.

올해는 자동차 폐기물과 아이오닉 5의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자켓·후드·바지 등 의상 12종을 선보인다. 제품은 블랙과 카키 색상의 원단에 탈부착 가능한 포켓과 벨트로 기능성을 더해 역동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메시지로 미리 주문하세요... KT, 비대면 주문 서비스 선택

소상공인 위한 ‘스몰오더’ 출시

KT가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 서비스 ‘스몰오더’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몰오더’는 차세대 문자 메시지 서비스(리치커뮤니케이션서비스, RCS)인 채팅플러스의 챗봇을 통해 매장 밖에서도 비대면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기 전 스마트폰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에 적용된 채팅플러스 챗봇을 통해 미리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어서



KT가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 서비스인 ‘스몰오더’를 오픈했다.

편의성이 높다. 고객은 음료 구입을 위해 기다리지 않아도 돼 시간이 절약되며, 소상공인은 주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대면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매장 운영 효율성을 극대

화할 수 있다.

‘스몰오더’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의 챗봇 탭에서 스몰오더 선택 후 원하는 매장을 선택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우선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KT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KT는 전국에 600여의 가맹점을 보유한 중형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베이’와 스몰오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채윤정 기자 echo@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카카오엔터, 아모레퍼시픽에 AI챗봇 공급

‘카카오 i 커넥트 톡’ 계약
내년 초 서비스 오픈 추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아모레퍼시픽과 ‘카카오 i 커넥트 톡’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 i 커넥트 톡’은 카카오톡 채널, 챗봇 등을 결합한 AI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번 계약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카카오톡으로 제품 조회·주문·배송 조회·고

객문의(A/S)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공식 온라인몰 ‘아모레몰’에서 카카오톡으로 대고객 채널을 추가 확장함으로써 고객 확보 및 판매 확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편리한 카카오톡을 고객 채널로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 접근성이 높고, 구매-배송-문의까지 이르는 절차를 간소화해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채윤정 기자